

한일회담 교섭 대화록

■ 김·오히라 회담

– 박 의장 면담(오히라 회담 전)

※ 1961년 11월의 한일 정상회담 후에도 청구권請求權의 명칭, 규모, 독도, 평화선, 어업문제, 주한 일본대표부 설치문제 등으로 회담을 지연시켜 오던 일본은 1962년 7월 이케다 수상의 재선再選과 오히라 외상의 취임으로 '청구권 아닌 경험자금' 1억5천만 달러를 한국 측에 제시했다.

1962. 10월 김종필 부장은 미국 CIA와 일본 MRA(도덕재무장운동) 지부의 초청을 받고 있었는데, 출국인사차 박 의장을 찾았다.

박 의장 : 김 부장이 직접 뛰어들어 청구권 문제를 일단 매듭지어라. 한일회담 대표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억 달러를 받으면 성공적이라고 했다. 그래서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 그렇다고 자유당 때처럼 2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김 부장 생각은 어떤가?

김 부장 : 일본의 외화보유고가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기본선基本線을 정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 의장 : 지난 번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이 일본 자민당 간부들과 접촉했을 때 8억 달러 선을 얘기해두지 않았나?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김 부장 : 그게 좋겠습니다. 예비회담에서 청구권 내용을 무상無償과 유상有償으로 분리하도록 일단 양해를 했으니 무상 3억 달러, 유상(ODA, 대외협력기금) 3억 달러 그리고 민간베이스 차관 3억 달러, 이렇게 해서 들고 나가죠.

박 의장 : 그렇게 추진해 보시오.

– 오히라(大平) 외상과 2차 회담

– 1962. 10.21~10.22 1차 회담/ 상호 입장 확인(방미 전)

– 1962. 11.12 2차 회담, 오히라 외상 집무실(방미 후)

오히라 : 이케다 수상이 유럽으로 떠나면서 이번 기회에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매듭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측은 현재 청구권 금액을 8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상이 떠나면서 내게 위임해 준 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범위라면 타결해도 좋다는 것이 수상의 생각입니다.

김 부장 :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서는 곤란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박 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타결을 위해서는 양쪽 다 욕먹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마주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라 : 일본은 아직 가난합니다. 전후戰後 복구도 마무리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장 성大藏省에서는 8천만 달러도 많다고 야단들입니다.

김 부장: 일본 역사를 보면, 러일전쟁 때 평화협상에 나갔던 대표들이 국민들로부터 굴욕외교를 했다고 욕을 먹고, 심지어 집을 불태우는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민족반역자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에 와서 그 반대가 아닙니까? 나는 지금 국내에서 매국노賣國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히라:…….(심각한 표정으로 김 부장 얘기를 들으며 계속 침묵)

김 부장: 더 이상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런 식이라면 누가 와도 당신네들 하고는 얘기가 통하지 않겠군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히라: (따라 일어나 손을 내저으면서) 그러지 말고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김 부장: (못 이기는 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외상! 귀국의 고사古事에 울지 않는 새를 두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울리고 말겠다.’고 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일본의 천하통일은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지만, 지금 한일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한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울리고 말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국관계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 시키는 것이 양국 모두를 위해 유익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히라: 우리가 8천만 달러를 얘기했는데 김 선생이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보시오.

김 부장: 무상 3억 달러, 대외협력기금(ODA) 3억 달러, 그리고 민간경제협력(상업차관) 1억 달러에 플러스 알파, 이것이 우리 정부의 요구요.

오히라: (팔을 휘저으며 일어서면서)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일회담이 타결되면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돌려줘야 합니다.

김 부장: 좋습니다. 독도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공군기를 동원하여 몇 일간만 폭파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세에 대해 독도는 일본 측에서 한일회담의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었다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이름도 한일 두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겠지요.

오히라:…….(할 말을 잃고 김 부장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계속 침묵)

김 부장: 빨리 끝내고 배도 채웁시다. 일본이 아무리 인심이 박薄하기로 소나 손님이 와서 세 시간이 지났는데 커피 한 잔도 주지 않습니까?

오히라: (비서실에 커피를 내오도록 지시한 다음) 무상 1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민간차관民間借款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김 부장: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한국에 2천만 달러를 준다 해도 당신을 욕할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1백억 달러를 가지고 가도 나를 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나나 모두 두 나라에서 역적逆賊이 되는 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상 당신은 고무라 주타로(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대신)가 되시오. 나는 이완용이가 되겠습니다. 무상 3억 달러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외협력기금 2억 달러는 장기 저리低利로 하고 나머지 1억 달러 플러스 알파는 민간차관이니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한 이 규모를 외상外相이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나더러 매국노賣國奴니 역적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혁명을 할 때 한 번 죽은 몸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일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한일문제가 타결돼서 양국의 장래에 새 장창이 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지탄指彈을 감수甘受할 생각입니다.

오히라: (김 부장 얼굴을 말없이 한참 쳐다보다가) 실례지만 김 선생의 올해 연세가 몇이시요?

김 부장: 서른일곱입니다.

오히라: 당신 얘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여지껏 인생을 헛 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은 아직 그런 거액巨額을 한꺼번에 낼 힘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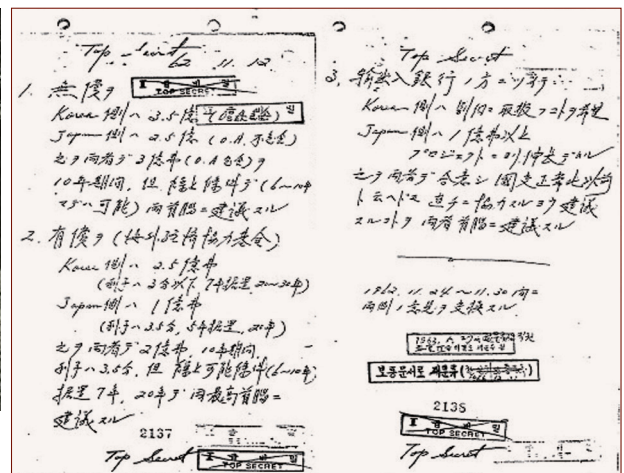
김 부장: 좋습니다. 외상과 나는 청구권 규모만 결정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절차는 양국의 회담대표들끼리 충분히 토의해서 매듭짓도록 합시다.

오히라: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 두 사람은 오히라 외상 집무실 책상 위의 메모지 두 장 각각에 합의한 액수를 쓰고 서로 상대방 메모지에 서명을 한 후 나누어 가졌다. 이것이 유명한 '김·오히라 메모'이다.



1961.11.12 한일국교정상화의 첫발을 디디게 된 한일 정상 박정희의장과 이케다 총리의 첫 만남. 김종필 중정부장의 사전 물밑 외교로 성사되었다.



■ '김·오히라 메모'(번역)

1962년 11월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의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정리한 메모지(원본은 보다 작은 용지에 한자와 한글로 작성하였다고 함) 내용

1. 무상無償을

Korea 측은 3.5억(O.A 포함)

Japan 측은 2.5억(O.A 불포함)

이것을 양자는 3억 달러(O.A포함)를 10년 기간, 단 기간을 앞당기는 조건으로(6~10년까지는 가능) 양국 수뇌에게 건의한다.

2. 유상有償을

Korea 측은 2.5억달러(이자 3부 이하, 7년 거치 20~30년)

Japan 측은 1억달러(이자 3.5부, 5년 거치 20년)

이것을 양자는 2억 달러, 10년 기간, 이자는 3.5부, 단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 조건(6~10년), 거치 7년, 20년으로 양국 최고 수뇌에게 건의한다.

3. 수출입은행에 대해

한국 측은 별개로 취급할 것을 희망

일본 측은 1억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따라 신장신장할 수 있다.

이것을 양자가 합의하여 국교정상화 이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협력하도록 건의할 것을 양자 수뇌에게 건의함.

1962.11.24~11.30 사이에 양측의 의견을 교환함.